

2002년 中國全國醫史學會學術大會 發表演文分析報告

차응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中文摘要>

這篇文章分析2002年中國中華醫史學會發表演文。把大會發表演文包括只在論文集根據論文里頭主要內容分爲代表論文，東西醫學，版本研究，醫家研究，古代醫學史，最近100年醫學史研究整理，少數民族醫學，國際交流，引用文分析法，醫療制度，醫療文物，西洋醫學史研究，來分析所有的發表演文內容。這篇文章的主要目的就是介紹中國醫學史研究的最近傾向。

I. 대회개요와 참가경위

본고는 필자가 2002년 中國全國醫史學會學術大會를 참가하고 대회분위기와 함께 당시에 발표된 논문을 개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이다. 2002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내몽고의 성수도인 呼和浩特市에서 中國醫史學會 전국 학술대회가 열렸다. 총 70여명의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였고 그중 20여명정도가 자신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대회 시작일에 발표논문집을 배포하였는데 발표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논문을 읽거나 정리하여 발표하는 형식이었고, 발표 후에 별도의 토론시간은 없었으며, 참가자들과의 열띤 토론도 물론 없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회장인 중국중의연구원의 이경위 교수를 중심으로 중의학 방면의 의사학 연구자와 서의학 방면의 의사학 연구자들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상당히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었다. 16일에 참가자들이 등록절차를 마치고 17일 전체발표, 18일 분임발표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필자가 참가한 분임조에서는 의사학 교재에 관한 문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전체발표는 순서대로 발표자가

20분정도의 시간으로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어떤 발표자는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기도, 어떤 발표자는 논문집의 내용을 글자그대로 읽기도, 어떤 발표자는 청중에게 강의하듯이, 어떤 발표자는 40분가까이 시간을 쓰기도 하는 등 다소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였지만, 참가자들의 태도는 상당히 자못 진지하였다. 자리를 떠서 한담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동북지방에서 온 어떤 교수는 하루종일 노트에 필기하는 진지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필자는 마침 北京中醫藥大學 醫史學教室 梁永宜 교수의 소개로 참석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II. 발표논문분류

필자는 발표논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편의상 다음과 같은 14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표1] 즉 1. 代表論文, 2. 東西醫學의 比較, 3. 中國古書版本研究, 4. 醫家研究, 5. 中國古代醫學史研究, 6. 100年研究成果整理, 7. 少數民族醫學, 8. 國際交流, 9. 引用文分析, 10. 理論研究, 11. 醫療制度研究, 12. 文物研究, 13. 西醫專攻 醫學

史 研究論文, 14. 其他 등 1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논문별로 간단한 소개를 덧붙였다.

번호	분류항목	논문 편수
1	代表論文	1
2	東西醫學의 比較	6
3	中國古書版本研究	2
4	醫家研究	5
5	中國古代醫學史研究	11
6	100年研究成果整理	13
7	少數民族醫學	2
8	國際交流	2
9	引用文分析	4
10	理論研究	10
11	醫療制度研究	9
12	文物研究	3
13	西醫專攻 醫學史 研究論文	6
14	其他	9

표 1 발표논문분류와 게재 논문편수

이 중에서 '代表論文'은 이경위 교수의 논문을 말하는데 중국 의사학회에서는 이경위 교수가 의사학회의 모든 활동을 주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학술대회나 학술잡지 등에 그의 논문이 맨 먼저 실리며 내용은 대개 관련사항을 포괄하는 형태이다. 본 학술대회에서도 이경위 교수는 중국과 다른 여러 나라와의 교류에 관한 총론적인 글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필자도 별도의 항목을 두어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東西醫學의 比較'는 전통적인 의사연구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현재 중국 중의학계에서 주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여서 본 학술대회에서도 적지 않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中國古書版本研究'와 '醫家研究', '中國古代醫學史研究'는 전통적인 의학사 연구분야이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우수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100年研究成果整理'는 이번 학술대회의 특집으로 꾸며진 것으로서 지금까지 100년까지의 중국 의사학계 각분야에서의 연

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다음으로 '少數民族醫學'에 관한 연구논문과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논문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引用文分析'은 참고문헌의 수치적 분석을 통해 논문의 상호연결성을 밝히는 인용문분석법에 관한 4편의 논문을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理論研究'는 전통의학 이론에 관한 분석과 고찰을 위주로 다룬 것이며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비록 편수는 많지만 몇편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수필형식의 내용도 소략한 글들이 많다. '醫療制度研究'와 '文物研究'는 본 학술대회 발표논문중에 현재 중국 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다룬 글들과 문물연구 및 고고학 연구와 관련된 논문들을 모아 별도의 항목으로 하였다. 그리고 서의전공자들이 쓴 의학사 관련 논문은 본 학술대회에서 적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지만 필자의 전공과 무관한 관계로 설명은 하지 않고 논문제목만 나열하였다. 마지막으로 '其他'에서는 의학사연구와 무관한 논문을 모아 기타항목으로 정하였다.

III. 발표논문분석1)

1. 代表論文

邁向21世紀人類共同的中医學.(李經緯) : 이 논문은 중국 의사학회의 명실상부한 대부 이경위 교수의 대회대표논문이다. 이 글은 그간의 중국 의사학회가 걸어온 길, 그리고 문화혁명의 시련을 거친 이후 주변국과의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 논

1) 이하의 논문은 필자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순서를 바꾸었음. 논문의 제목은 원제목을 그대로 실었고 저자는 괄호로 표시함.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는 가장 앞에 있는 대표저자만을 기재하였음.

문에는 한국의 한의학에 대한 내용도 보이는데, 한국이 일제의 침략을 받아 한의사제도가 없었졌음에도 한의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내용, 그리고 52년 이원계 의료제도 국회통과, 64년 동양의대 경희대합병 등의 구체적인 사실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2. 東西醫學의 比較

1) 文化發展對中西醫理論建構的影響 (張文)

이 논문은 중의와 서의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글이다. 동서양의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의학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으로 다소 식상하기는 하지만,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특징을 잘 요약하여 의학이론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성실하게 논의를 이끌어간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글이다.

2) 談談與醫史學研究有關的几个新學科 (張瑞賢)

이 논문에서 저자는 중국의학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세 분야(中國文化, 科學思想史, 科學知識의 普及)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저자는 중의학을 중국식으로 연구해야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문화'와 '과학사상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양의학 및 서양식 연구방법과는 차별적인 중국만의 방식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과학지식의 보급'을 강조하여 중국인들에게 우리 식의 사고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中國傳統醫藥比較學探討 (郝福明)

중의학과 서의학의 원만한 결합을 위한 하

나의 방편으로 '中醫比較學'이란 학문영역을 소개하는 글이다. 아직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지만, 우선 비교가 되어야 中西醫의 진정한 결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비교학의 장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4) 從醫學發展史看中西醫結合(梁潤英)

이 논문은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中西醫結合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싣고 있다. 저자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중서의결합은 중의를 서의의 범주에 넣는데 치우쳐있으며, 특히 90년대이후 10여년간은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고 보고있다.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그것은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며 '系統論'의 방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5) 淺論中醫與解剖學(黃家榮)

이 논문에서 저자는 중의의 臟象學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즉 아직도 의식의 작용이 心臟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현대의 해부학에 기초해서 중의 장상학을 다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내용과 고대중의의 내용을 비교하여 중의를 마치 과학적인 학문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그리고 중의의 난해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중의학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다고 면박을 주는 행위, 그리고 系通論, 比較論등의 들먹이며 잘못된 중의이론을 서양의학에 견강부회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 등은 중의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역설하고 있다.

6) 基因調控與陰陽調節-新世紀疾病防治的新思路(高益民)

현대 서양의학의 특징이라면 게놈연구를 들

수있다.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게놈연구를 중의학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또한 현 중의학의 새로운 과제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그러한 측면에서 기술된 글이다. 게놈연구와 중의학의 상관성에 대해 음양의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게놈연구가 중의학의 整體觀念, 辨證論治 등 기본이론체계를 동원해 앞으로의 게놈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고 시도한 글이다.

3. 中國古書版本研究

1) 《御藥院方》考辯 (劉暉楨)

저자는 1983년 人民衛生出版社에서 근무하면서 元代醫書인 「어약원방」을 影印하여 출판한 담당자이다. 이것을 계기로 「어약원방」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저자가 「어약원방」에 대한 서지학적인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추론해 가는 글이다.

2) 姜氏藏《壽世保元》殘本版本鑒定報告(程東旗)

이 논문은 강모씨의 위탁을 받아 저자가 강모씨가 소장하고 있는 「수세보원」을 기존 판본과 비교하여 고증하고, 학술적 및 경제적 가치를 추산해낸 글이다. 결론은 기존에 알려진 판본중의 하나이며, 더욱이 잔본이기 때문에 학술적 및 경제적 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4. 醫家研究

1) 芻議張子和攻邪學派研究的几个問題 (楊建宇)

장자화연구회의 주축인 양건우가 그간의 장

자화 기념사업의 현황을 소개하였고, 기존의 장자화에 대한 비판논의를 반박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장자화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연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2) 張子和對中醫學的貢獻(薛益明)

장자화의 의학사의 공적에 대해 저자는 계승과 창조라는 측면에서 그의 가치를 평가하고 變法의 전문가라고 장자화를 평하고 있다.

3) 淺談張子和治療不孕症的學術經驗(谷勝東)

장자화가 부인과질환의 불임증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문헌적, 임상적으로 논증해가는 논문이다. 『儒門事親』에는 장자화의 불임처방 洗洗丸이 나온다. 이 불임처방은 사물탕에 기초한 것인데, 四物湯이 불임처방의 기본방으로 학계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醫學綱目』 이후이다. 저자는 그러한 맥락에서 장자화의 洗洗丸에 주목하여, 유래, 약리작용 및 현대적응용 등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연구방법은 고의서의 임상적 가치를 어떻게 규명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전형이라고 여겨진다.

4) 道教養生文化對吳昌碩的影響(陳雲蓮)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 오창석의 유물(글, 낙관)에는 그의 도가사상을 짐작할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이 있다. 저자는 그의 작품에 어떤 유형의 도가사상이 담겨져 있으며, 또 왜 그가 그렇게 도가에 심취했는지 생애를 추적해 가면서 논술하고 있다.

5) 北宋名醫吳奎及其藥簽的選方用藥特點探析(劉德榮)

이 논문은 복건성 일대에서 의성으로 추대

받는 오도와 그의 저작이라고 추정되는 약전에 대한 내용고찰이다.

5. 中國古代醫學史研究

1) 明万曆醫學鼎盛的社會諸因素(和中浚)

明代 萬曆 시기는 이 시기는 龔廷賢, 李梴, 張介賓, 趙獻可 등 明代의 명의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이고 저술의 간행도 많았던 明代의학의 황금시대로 분류된다. 저자는 이 시기 의학의 특징을 인쇄술의 발달, 유의의 증가, 의학자들의 빈번한 왕래, 제왕의 질병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여러 방면의 사회적인 요소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왕의 질병과 관련해서는 神宗의 예를 들면서, 그가 어려서부터 줄곧 지병에 시달렸고 정사기록에서 끊임없이 그의 건강에 대한 기록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34년간 재위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저자는 楊繼洲, 龔廷賢, 吳崑 등의 당대의 명의들이 궁중에 있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2) 魏晉玄學與中醫(孟慶雲)

魏晉南北朝時代의 의학정황에 대해 사회적인 요소와 결부시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글이다. 저자는 당시의 분위기를 玄學이라고 규정하고 현학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현학의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자세히 기술하였고, 그러한 사회분위기가 의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술하고 있다. 특히 ‘醫者意也’는 당시의 현학적 분위기, 즉 경전의 속박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향한 하나의 지침이었으며, 당시의 수많은 임상경험의 축적은 바로 그러한 ‘醫者意也’식의 규범의 탈출에서 비롯되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는 宋元代로 넘어가면서 의학의 기본 가르침인 ‘格物致知’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의

학적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3) 魏晉南北朝精神疾病述論(王鳳蘭)

위진남북조시대의 정신병연구에 대한 전문고찰이다. 당시 丹藥복용을 정신병의 연구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고, 당시 간행된 의서에서 정신병과 관련된 처방을 추려 부록으로 실고 있다.

4) 《領南衛生方》有關瘡癩的証治及貢獻(朱建平)

『영남위생방』은 宋代에 처음 지어졌고 元代에 간행된 것으로 송금원시대 瘡癩에 대한 전문적인 논술 9편을 모은 것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장학에 대한 기록이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病因, 病機, 治療, 調養 등으로 조목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였고 아울러 의학사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5) 淺論日本回歸中醫臨床綜合性醫書-《醫學新知全書》(王咪咪)

1627년에 간행된 『의학신지전서』는 현재 중국에는 없고 일본에 소장되어있는 의서이다. 몇 년전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 일본전역에 있는 중국의서들이 정리되어 중국에서 다시 간행되었는데 이 책은 그 중의 하나이다. 본고는 이 책에 대한 내용분석이다. 저자는 이 책을 당대 출간된 의서들과 비교하면서 기존에는 없는 상당히 독특한 편제방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의학입문』의 편제와 매우 흡사하다.

6) 《楮氏遺書》의臨床學術思想淺談(閔曉宇)

이 논문은 『저씨유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7) 從《內經》所論風邪致病看中醫理論的建构(顧漫)

이 논문은 『내경』 중에 나와있는 풍과 관련된 기록을 저자의 관점으로 분류정리하고 설명한 글이다. 이 글은 특히 임상에 근거한 자세한 관찰이 돋보이며, 아울러 『내경』의 풍에 관한 기록을 최대한 소박한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즉 '善行而數變'라는 『내경』의 기록은 단지 자연계의 바람에 대한 고대인의 인식일 뿐이며, 風病이 변화가 다양하다는 관점은 후대 의가들이 추론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傷寒學派淺論(王雅麗)

遼寧中醫學院 醫史文獻研究所에 있는 왕아려 교수가 상한의학파를 다음 몇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모두 六經經絡, 三綱鼎立, 六經氣化, 六經賅百病, 傷寒皆熱病, 中西匯通傷寒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9) 論中風病研究的四次飛越(楊金生)

『내경』 이래의 역대의가들의 중풍에 대한 인식과정을 內風外風의 인식, 風病的 病機病位 인식, 풍병의 辨證論治와 活血化瘀法 응용, 현대서양의학의 도입 등의 4단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10) 中醫護理學歷代發展概略(舒忠民)

이 글은 중의간호학의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개괄한 글이다. 침구치방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간호학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약의 복용법과 양생에 관한 사항은 간호학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다.

11) 中國古代早期養老思想析論(廖果)

중국의서에서의 양생에 관한 기록을

추려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6. 100年研究成果整理

1) 20世紀中國文獻學研究述論(王鳳蘭)

20세기의 문헌학방면에서의 연구업적을 정리한 것, 이분야의 현재 권위자로는 중의연구원의 馬繼興 교수가 있다. 의사학 분야의 李經緯 교수와 함께 현재 중국의 문헌연구를 이끌어 가는 태두이다. 이 논문에서도 마계홍 교수의 업적이 두드러지게 소개되고 있다.

2) 20世紀中外醫學交流史研究述論(寇蘭俊)

20세기이후에 중의학이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과 서양의학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정리한 것. 크게 50년 中華人民共和國 성립을 기준으로 논의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함. 중의학이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3) 20世紀中醫辭書研究述論(寇蘭俊)

그간의 중의학 사전편찬의 과정을 개괄하였고 발행된 사전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4) 20世紀世界醫學史研究要論(鄭蓉)

그간의 중국의 세계의학사에 대한 연구업적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5) 20世紀中國古代醫學史研究概論(劉學春)

중국고대의학사 연구의 여러 분야에 대한 기존의 업적을 정리한 것으로서 의학의 기원, 의학사의 시대구분, 의료제도와 의학교육, 소

수민족의학, 유물의 발굴과 조사, 비의학 문헌의 의료자료연구, 고대의 실험연구, 기간의 중국의학통사의 간행,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서 각각의 연구결과를 개괄하여 설명하였다.

6) 20世紀中國近代醫學史研究概論(鄭蓉)

중국의 의사학자들이 근대 의학사를 어떻게 이해해왔는가를 정리한 논문이며 주로 발표는 문들과 저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7) 中國現代醫學史研究(劉學春)

중국의 의사학자들이 현대 의학사를 어떻게 이해해왔는가를 정리한 논문이며, 주로 발표는 문들과 저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8) 20世紀中國民族醫學史研究論述(鄭蓉)

중국의 의사학자들이 소수민족 의학사를 어떻게 이해해왔는가를 정리한 논문이며, 주로 발표논문들과 저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9) 20世紀敦煌醫學資料研究(王鳳蘭)

돈황의서연구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10) 20世紀維吾爾族醫學研究述論(梁永宣)

신장의학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11) 蒙醫學研究成果100年(王鳳蘭)

몽고의학에 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 외에 몽고의학의 특징과 학파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되어 있다.

12) 請宮醫藥研究綜述(李岩)

청나라 궁중의 의학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중에는 전문연구도 있고 대중보급형의 서적들도 있는데 그러한 결과들에 대한 분석 보고이다.

13) 關於中醫証候研究的思考(張志斌)

중국에서는 50년대 해방이후 국가적으로 중의학표준화사업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국가의 기금을 받아 나름대로 표준화작업을 실시하여 80년대 이후 나름의 결실을 보았다. 그래서 수많은 관련 의서들이 출간되었고, 교과서에도 그 연구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를 분석해볼 때 연구자들의 입장에 따라 분류방식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도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나름대로는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표준화라는 측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기존의 방식, 즉 질병을 중심으로 변증을 해가는 방식에서 탈피하는 것만이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少數民族醫學

1) 試論中醫基礎理論對中國少數民族醫學發展的影響 (康興軍)

저자는 각각의 소수민족의학에서 중의학의 속성을 가려내어 어떤 형태로 중의학과 연결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2) 蒙藥現代化發展的几点思考(徐文龍)

몽고의학의 약물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개괄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현대화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8. 국제 교류

1) 中國針灸在德國的發展(任春梅)

중국의 침구술이 독일이 전파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고 현재의 독일의 침구학 연구경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였다.

2) 麥堂拉多關於人痘接種法的報告(小田泰子)

일본학자의 글을 번역 발표한 것으로 1700년대 중국의 인두접종법이 터어키에서 어떻게 유럽에 전파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논문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천연두의 우두접종이 중국의 인두접종에서 비롯되었으며 먼저 터어키로 전해진 다음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특별히 본 논문집에 번역 게재된 듯하다. 내용은 麥堂拉多라는 영국외사가 터어키 주영국대사관 주치의로 근무하면서 당시 터어키에 유행하던 인두접종법을 보고 영국에 돌아가 스스로 실험한 보고서에 대한 분석이다.

9. 引用文分析

1) 引文分析的概念,原理及意義(劉曉來)

인용문분석법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하였다.

2) 引文分析的歷史與現狀(劉曉來)

인용문분석법에 대한 역사와 현재의 연구상황에 대한 개괄하였다.

3) 引文分析法針對針灸文獻和人才的評價(梁峻)

인용문분석법을 이용해 중국의 침구문헌을 분류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가치 있는 논문과

영향력 있는 연구자를 가려내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4) 針灸學科文獻聚類的結構分析(梁峻)

인용문분석법을 이용해 중국의 침구문헌을 분류한 결과이다. 앞의 논문에서는 영향력 있는 논문을 가려내는 예시를 보여준 데 비해 본 논문에서는 논문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0. 이론연구

1) 《內經》中的生物學思想與冬病夏治(李方浩)

『내경』에 나와있는 冬病夏治의 내용을 생물학적 이치와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절에 따른 질병의 변화를 陽氣消長的 원리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2) 淺析中醫學理論體系的性質(張明雨)

중의학 이론에 대한 에세이형식의 글이다. 중의학은 경험과 실험에 입각한 의학이며, 동시에 철학적인 기초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내는 것이 중의학을 살리는 관건이라고 주장하였다.

3) 中國辯證思維規律(康永)

중의학의 기초이론을 대립통일원리, 운동원리, 물질과정신의 원리, 예방치료원리 등 몇 가지로 분류하고 저자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그것을 설명하였다.

4) 淺談中醫整體思想優勢(劉寧)

중의학의 우수성을 정체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에세이 형식의 짧은 글이다.

5) 醫學的反思与展望(曾傳澤)

중의의 우수성을 강조한 에세이 형식의 짧은 글이다.

6) 肝腎与生殖關係淺談(張連歧)

射精과 妊娠의 생식과정을 肝腎의 작용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 문헌고찰이다.

7) 試論情志与健康之因果(李永謙)

낙관적인 생활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문헌고찰을 하였다.

8) 淺議中醫診療如用兵(于思強)

兵法와 중의학을 연결시켜 설명하는 에세이 형식의 글이다. 천리, 지리, 전략, 용병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9) 淺論肝陽上亢与高血壓(張慶樓)

肝陽上亢과 高血壓를 연결시킨 문헌논문이다.

10) 論老年學習行爲對健康的促進(王明旭)

노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재학습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11. 醫療制度研究

1) 民國執業中醫檢核試史論(梁峻), 民國北平市執業中醫檢核考試始末(李洪曉), 民國上海市中醫考詢情況(胡曉峰)

이상 세 편의 논문은 1940년대 중국에서 실시된 중의사 시험에 관한 내용이다. 당시의 정부간행물을 토대로 시험의 실시배경, 시험문제, 시험후의 처리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있다.

2) 近代中醫學科設置融合西醫新知概述(吳文請)

근대 중의학 교재의 발간과정과 서양의학의 내용이 중의학교재에 포함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고찰이다.

3) 民國時期北京中醫師承教育的研究(董澤宏)

근대중국의 徒弟教育의 형식을 분류하고 근대 의학사에서의 도제식 의료기술전수방법이 갖는 의의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도제교육의 한계성도 지적하였다. 주로 명의들의 전기를 근거로 기술하고 있다.

4) 18世紀中西預防醫學比較研究(甄橙)

18세기 서양에서 공공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된 위생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당시, 중국은 어떤 형태로 예방의학을 발전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즉 예방의학이라는 측면에서 서양은 공공위생을 통해서 그 목적을 실현시켰다면 중국의 개인의 양생을 중심으로 그 목적을 실현시켜가고 있었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5) 傳染性防治：中國近代醫學建制化的開端(張大慶)

본 논문은 20세기초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의 정도가 서양의 공중보건위생의 보급에 따라 점차 감소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6) 中醫藥科研机构發展概況(1949-1999)(余永燕)

50년대 해방이후 국가에서 시행한 중의학연구사업에 대한 개괄이다.

7) 加速中藥現代化發展進程及成果轉化
思路芻議(任常胜)

12. 文物研究

1) 淺議考古學方法在医史文物研究中的
應用(譚紅兵)

이 논문에서 저자는 현재 의학학계의 의학
유물연구는 등록, 배열, 분류의 수준을 넘지못
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그래서 보다 수준있는
고고학의 기술을 도입하여 학문의 차원을 제
고할 필요가 있음 주장하고 있는데, 즉 중국의
학의 발전과정을 현물을 중심으로 증명해낼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해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2) 國家重點醫藥衛生文物調查報告(梁峻)

양준교수가 국립중의약박물관의 건립을 건
의하는 보고서이다.

3) 中國医史博物館陳列說明(梁峻)

2002년 중의연구원의 의과학박물관이 확장
개관하였다. 이 논문은 의과학박물관 내부에
전시된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다. 주로 배치원
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며, 구체적인 문물소
개는 없다.

13. 西醫專攻 醫學史 研究論文

疾病社會史研究：理論與實踐 (劉燕)

關於醫療服務體系中存在問題的回顧和展望
(張繼紅)

爭論與挑戰：HGP的歷史進程 (李志平)

量子醫學-未來醫學新趨勢 (吳振民)

臨床醫師醫學繼續教育工作探案 (于振宣)

中國南極考察隊的醫學保障 (黃薇)

14. 其他

請開靈治療藥物性皮炎51例療效觀察(張繼
成)

路路通治療腦梗塞263例臨床分析(張艷玲)

應用“毒藥攻邪”學說治療頑症(武明俠)

桂枝芍藥知母湯治療痹証(錢占紅)

刺五加注射液治療強迫症臨床對照研究(党仁)

綜合手法治療中央型腰椎間盤突出症(張志偉)

滋陰降火法治療女性兒童特發性性早熟的中
西研究現象(馬堃)

253例門診Ⅱ型糖尿病臨床分析報告(閻鳳鳴)

‘民國名醫著作精華’評述 (俞鼎芬)

IV. 분석내용정리 및 고찰

1. 代表論文

이경위 교수는 “21세기 인류공동의 중의학
을 향해 나가자(邁向21世紀人類共同的中醫學)”
라는 제목으로 본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경위 교수는 중국 의사학회의 명실상부한 대
부로서 1988년부터 중국 의사학회 상임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으며 중국 의사학회의 모든 사
항이 이경위 교수의 재가로 이루어질 정도로
영향력이 크고 학문적으로도 업적이 많다.

2. 東西醫學의 比較

중국에서도 동서의학의 결합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 시점에서는, 아무리 대외적으로 중국의 중
西醫結合의 성과가 뛰어나다고 강조해도 내부
적으로 느끼는 것은 일종의 위기감이다. 실제
로 근 10년간 별다른 연구의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70년대까지 중국의학계는 중의의 내용을 서양의학의 수단으로 증명해내는데 주력했고, 그러한 초기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西醫가 해내지 못하는 일을 중의가 성공하기도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여전히 단계의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張²⁾은 문화적인 차이에 착안해서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는 것이며, 郝³⁾, 梁⁴⁾ 등은 比較論 系統論 등의 방법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거나 아니면 黃⁵⁾처럼 전면적인 부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高⁶⁾의 게놈연구와 중의학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하나의 돌파구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中國古書版本研究

《御藥院方》考辯(劉暉楨)과 姜氏藏《壽世保元》殘本版本鑒定報告(程東旗)의 두 편의 논문은 판본연구에 관한 글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의사학 분야가 아닌 문헌학 분야이지만, 중국에서도 의사학과 문헌학 두 분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종종 이러한 판본연구의 논문들이 의사학회에서 발표되기도 한다.

4. 醫家研究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張子和에 대한 세 편의 글⁷⁾이 발표된 것이 주목할 만 하다. 양진우가 주축이 되어 2000년 장자화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이것을 시작으로 중국역사학회에

장자화분회를 만들었으며, 河南省에 그의 기념비를 세우는 등 장자화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본 학술대회의 발표한 세 편의 논문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발표된 것이다. 그리고 서예가 오창석의 작품에서 도가적 사상을 이끌어낸 논문⁸⁾이 발표되었는데 이 논문은 成都中醫藥大學의 醫史學教室 主任教授 和中浚 教授의 지도아래 발표된 것으로 화중준교수는 중국역사학회에서 다방면에 걸쳐 학문적 식견이 높다고 인정받는 중견학자이다.

5. 中國古代醫學史研究

본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서도 중국의 고대의학사 연구는 한 단계 진보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역사학계는 총론연구를 마무리하고 각론의 내용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단계로 이미 접어들었다.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명나라 萬曆時代 의학사에 관해 논문이다.⁹⁾ 그리고 魏晉時代醫學을 다룬 孟¹⁰⁾, 王¹¹⁾의 두 편의 논문은 내용이 풍부해서 의학사를 강의하는 연구자들 이라면 한번은 참고할 가치가 있는 글들이다. 「영남위생방」¹²⁾, 「지씨유서」¹³⁾, 「의학신지전서」¹⁴⁾에 관한 세편의 논문은 문헌연구자들의 판본연구방식이 아닌 의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글들이다. 대체로 중국학자들의 의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관점은 일관되어 있다. 즉 辨證論治의 관점에 얼마나 충실한가와 새로운 견해는 없느냐, 각 전문분과의 내용이 모두 갖추어져 있느냐의 세가지 관점이다.

2) 文化發展對中西醫理論建構的影響(張文)
3) 中國傳統醫藥比較學探討(郝福明)
4) 從醫學發展史看中西醫結合(梁潤英)
5) 淺論中醫與解剖學(黃家榮)
6) 基因調控與陰陽調節-新世紀疾病防治的新思路(高益民)
7) 劉謙張子和攻邪學派研究的幾個問題(楊建宇), 張子和對中醫學的貢獻(薛益明), 淺談張子和治療不孕症的學術經驗(谷勝東)

8) 道教養生文化對吳昌碩的影響(陳雪蓮)
9) 明萬曆醫學鼎盛的社會諸因素(和中浚)
10) 魏晉玄學與中醫學(孟慶云)
11) 魏晉南北朝精神疾病述論(王鳳蘭)
12) 《嶺南衛生方》有關癩瘡的証治及貢獻(朱建平)
13) 《褚氏遺書》的臨床學術思想淺談(閻曉宇)
14) 淺論日本回歸中醫臨床綜合性醫書 - 《醫學新知全書》(王咪咪)

6. 100年研究成果整理

이번 학술대회는문집에는 특집형식으로 그 간 의학사의 각방면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종합하는 형태의 논문들이 실려있다. 문헌연구, 의학사연구, 사전편찬, 표준화작업, 소수민족의학연구 등 각방면의 최근 100여년간의 연구업적을 시대별로 혹은 분야별로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였다. 각 분야에 관심있는 연구자라면 반드시 참고해야할 자료들이다.

7. 少數民族醫學

중국에는 수많은 소수민족이 있고 각각의 소수민족에는 나름의 전통의학이 있다. 중국에서는 이를 소수민족의학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경우가 티벳(藏族)의학, 위구르의학, 몽고의학, 이족(彝族)의학, 조선족의학, 장족(壯族)의학 등이다. 이 중에서 티벳의학, 몽고의학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며 의료시장에서도 티벳학과 몽고의학내의 약들이 중국정부의 특허를 받아 시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陝西中醫學院의 康興軍 교수가 소수민족학과 중의학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룬 논문¹⁵⁾과 몽고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논문¹⁶⁾ 2편이 실려있다.

1) 20世紀維吾爾族醫學研究述論(梁永宣)

신장의학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한 것.

2) 蒙醫學研究成果100年(王鳳蘭)

몽고의학에 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외에 몽고의학의 특징과 학파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

15) 試論中醫基礎理論對中國少數民族醫學發展的影響 (康興軍)

16) 蒙藥現代化發展的几点思考 (徐文龍)

되어 있음.

8. 國際交流

중의학이 미주 및 유럽으로 전파되어 각국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학술대회에서는 독일에 침구술이 전파되는 과정과 현재 연구경향을 소개한 任¹⁷⁾의 글과 중국의 중두법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기술한 일본인 小田泰子の 글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실려있다. 이 외에도 寇¹⁸⁾와 李¹⁹⁾의 발표논문에서도 중의학의 국제교류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실려있다.

9. 引用文分析

引用文分析法은 인용문헌의 수치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논문상호간의 관계 및 해당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네 편의 논문은 그에 대한 개념과 역사, 그리고 인용분석법을 응용한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10. 이론연구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학이론에 대한 고찰논문은 의학사 연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논문들이며, 게다가 모두 논문형식이라기보다는 에세이형식의 글들이며 앞의 李²⁰⁾, 張²¹⁾, 康²²⁾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주제 및 논의전개가 진부하다.

17) 中國針灸在德國的發展 (任春梅)

18) 20世紀中外醫學交流史研究述論 (寇蘭俊)

19) 邁向21世紀人類共同的中國醫學 (李經緯)

20) 《內經》中的生物學思想與冬病夏治 (李方浩)

21) 淺析中醫學理論體系的性質 (張明雨)

22) 中國辯證思維規律 (康永)

11. 醫療制度研究

의료제도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을 끄는 발표논문은 梁²³⁾, 李²⁴⁾, 胡²⁵⁾가 발표한 세 편의 논문이다. 이 논문들은 1940년대 중국에서 실시된 중의사 자격시험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당시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못하였고 시기도 일정하지 않다. 본 논문들에서는 당시의 정부간행물을 토대로 시험의 실시배경, 시험문제, 시험후의 처리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 외에도 甯²⁶⁾의 중의학 교재의 변천과정에서 서양의학이 점차 중의학 교과과정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에 관한 논문과 董²⁷⁾의 근대 도제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은 앞선 세 편의 논문들과 함께 근현대 한국의학사 연구에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8世紀中西預防醫學比較研究”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甄澄은 북경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교수로서 젊은 학자이다. 그녀는 본 발표논문에서 서양에 공중보건이라는 예방의학이 있었다면 동양에는 양생이라는 예방사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했다고 주장하였다.

12. 文物研究

본 학술대회에서 譚²⁸⁾은 현재 중의학계의 문물연구수준이 보편적인 고고학의 발달수준을 따라가지 못한채 낙후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國立中醫藥博物館의 건립을 주장

하는 보고서²⁹⁾와 2002년 中醫研究院에서 새로 단장한 醫學史博物館의 문물배치에 관한 논문³⁰⁾이 발표되었다.

V. 맺음말

본고에서 필자는 2002년 중국 내몽고에서 열린 중화의사학회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을 토대로 현재 중국의학회의 연구동향에 대해서 소략하게 알아보았다. 이번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집은 비교적 규정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학연구와 관련 없는 논문들이 다소 실려 있다. 그러나 그런 논문들을 제외하고서도, 수십편의 양질의 논문들은 중국 의사학회의 역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학술대회논문집에는 그간 100년간의 의사학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정리하는 특징이 실려 있어서, 중국 의사학회의 역량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번 학술대회발표논문을 代表論文, 東西醫學의 比較, 中國古書版本研究, 醫家研究, 中國古代醫學史研究, 100年研究成果整理, 少數民族醫學, 國際交流, 引用文分析, 理論研究, 醫療制度研究, 文物研究, 西醫專攻 醫學史 研究論文, 其他 등 1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논문별로 간단한 소개를 덧붙이고 분류항목별로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VI. 참고문헌

廖果 梁峻 李經緯 共編, 東西方醫學的反思與前瞻, 中醫古籍出版社. 2002, 中國

23) 民國執業中醫檢核試史論 (梁峻)
24) 民國北平市執業中醫檢核考試始末 (李洪曉)
25) 民國上海市中醫考詢情況 (胡曉峰)
26) 近代中醫學科設置融合西醫新知概述 (吳文諤)
27) 民國時期北京中醫師承教育的研究 (董澤宏)
28) 淺議考古學方法在醫史文物研究中的應用 (譚紅兵)

29) 國家重點醫藥衛生文物調查報告 (梁峻)
30) 中國醫史博物館陳列說明 (梁峻)